

광주·전남지역 토지 경매시장 회복세

지난달 낙찰가율 58.5%p·9.6%p 상승세
화순군 동북면 임야 감정가 544.7% 기록
6~8월 광주·전남 총 2,487가구 집들이

광주·전남지역 토지 낙찰가율이 5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 6월부터 8월까지 총 2,487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51.8% 감소한 물량이다.

13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5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5월 광주 토지 경매는 55건이 진행돼 33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118.7%로 전월대비 58.5%p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0.2명 늘어 3.3명을 기록했다.

특히 광산구 하남동 소재 2,537㎡ 임야가 감정가의 121%인 20억5000만원에 낙찰돼 광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임야 893㎡가 감정가의 135%인 5억5,565만원, 대지 182㎡가 감정가의 239%인 2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8% 감소한 것이다. 주거시설은 133건이 진행돼 72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90.9%로 전월대비 0.9%p 하락했다.

광산구 월계동 첨단모아미래도 아파트 60㎡ 경매에 2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

가의 100%인 1억4,611만원에 낙찰돼 광주 최고 응찰자 물건이 됐다.

전남의 토지 경매는 424건이 진행돼 208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98.6%로 전월대비 9.6%p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3.3명으로 전월보다 0.3명 늘었다.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소재 임야 8916㎡가 감정가의 544.7%인 7770만원에 낙찰, 67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남 최고응찰자를 기록했다.

주거시설은 173건이 진행돼 82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7.1%p 상승한 84.9%, 평균응찰자수는 0.1%p 떨어진 2.9명을 기록했다.

한편 올 6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총 2,487가구의 아파트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8% 감소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2018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 같은 기간(11만3,000세대)보다 3.5%



감소한 10만9,039세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8,344세대로 전년 동기보다 10.1% 증가한 반면 지방은 5만695세대로 전년 동기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동 KTX역 모아엘가 341가구(60~85㎡), 전남에서는 해남 고도리 한아름골드 아파트 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광주는 입주 예정 아파트가

없었다. 전남은 순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 광양만권 중흥S클래스 B-3·B-4 각각 436·931가구가 새 집으로 이사한다.

오는 8월 광주는 서구 쌍촌동 엘리체 602가구, 서구 화정동 화정역 바이테라스 1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전남은 입주 예정 아파트가 없다.

한편 지난해 6~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총 4,796가구가 입주 예정이었다. /서미에 기자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게임쇼인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에서 대형 QLED TV를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선보여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QLED TV로 게임 즐겨요”

삼성전자, 세계 최대 게임쇼서 최고 인기
‘E3 2018’ 전시장에 게임 체험공간 마련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게임쇼인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에서 대형 QLED TV를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E3 2018'에 참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Xbox)의 메인 전시장에 75형 QLED TV 10대를 설치해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QLED TV는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모드로 전환되고, 기기에서 입력된 신호와 출력 사이에 발생하는 '입력지연' 현상이 0.015초 수준에 그치는 등 최적의 게임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 제품

이다. 또 컬러볼륨 100%와 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2000의 밝기로 화질을 강화해 게임 특유의 빠른 그래픽이 재현되도록 했다.

여기에 고해상도 게임에서도 굵직한 현상이 없도록 '라테나 프리싱크' 기능을 더해 부드러운 영상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전무는 “빠른 반응 속도와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는 QLED TV는 고성능 게이밍 플랫폼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며 “QLED TV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에 기자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도 살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한 조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연합뉴스

www.ilgoon.co.kr

ILGOON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함 (주)일군토건

일군토건은 2004년 창사 이래로 주택, 토목, 조경 등 각 사업분야에서 풍부한 실적을 쌓았으며,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새로운 기술혁신과 완벽한 설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정밀하고 견고하게 시공할 것입니다.

건축사업 [공공기관/학교/상업시설/오피스/아파트/병원]
토목/전기/조경사업 [항만/도로/공원/재해대비]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98 일군타워 TEL : 062-574-9882
목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 72 TEL : 061-277-9882
경기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0 TEL : 031-813-9983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사학연금 회의실에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 공유가치 창출”

사학연금-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약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사학연금 회의실에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운영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종훈 이사장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임무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나누시청, 나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교육 기부, 중식비 지원, 노사공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금감원, 상호금융 경영진 긴급 면담

개인사업자 대출 49조 급증 빨간불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32개 상호금융조합 경영진과 면담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49조원을 기록,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0.2%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리스크 관리방안의 하나로 개인사업

자 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조합 이사장 등 경영진과 조합별 개인사업자 대출의 현황, 특징, 급증사유, 건전성 현황과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면담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실시하는 상호금융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향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성 관리

및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26개 조합과 면담했지만, 올해는 6개 늘어난 32개 조합의 경영진과 만나고 필요하면 면담할 조합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집중 모니터링 대상 조합도 5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모니터링 주기도 매주에서 매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신탁중앙회 각 중앙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권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